

< 지역방송 비정규직 문제 사례 및 대응 >

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& 영남지회장
방송작가 염정열(대구MBC·KBS대구)

1. 영남권역 방송사 현황 (지상파, 교통방송)

- ① 대구·경북 : 대구MBC, 포항MBC, 안동MBC, KBS대구, KBS포항, KBS안동,
TBC, TBN대구(교통방송), TBN경북
- ② 부산·경남 : 부산MBC, 울산MBC, MBC경남, KBS부산, KBS울산, KBS창원, KBS진주
TBN부산, TBN울산, TBN경남

=> 지역 MBC : 6개
KBS 총국 : 7개
교통방송(TBN) : 5개 합 : 18개

- ③ 영남권역 방송사(지상파, 교통방송)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 : 약 110명
100%로 프리랜서로 활동 중

2. 지역방송사 비정규직 처우

- 20년 차 방송작가 원고료 (평균 월 200만 원 내외)
- 휴가 없음 (휴가를 갈 경우, 대타를 구해놓고 감(관혼상제, 임신, 출산 등등), 무급휴가)
- 프로그램 종료 시, 다음 프로그램 제작이 없으면 비자발적 실업
- 방송 편성 삭제 시, 원고료 없음

3. 지역방송작가가 겪은 불합리한 피해 사례

- 금융위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회사 일원으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자면서 원고료 5% 삭감
- 결혼한다고 하니, 일은 언제까지 할 거냐고 반문
(결혼하면 당연히 작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)
- 10년 이상 원고료 동결 (해당 작가의 항의에 주 1만 원 인상)
-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라고 일방적 통보
- 프로그램 없어진다고 일주일 전 통보
- 촬영가는 길에 가벼운 사고, 산재처리 되지 않아 치료비 개인 부담
- 작업할 책상이 없어, 빈 직원 책상에 일명 메뚜기처럼 일하기
(개인 책상과 집기 제공은 근로자성 인정한다는 이유로 있던 책상도 없애기)
-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송 제작이 힘들다는 이유로 작가들 반강제적 무급휴가

4. 방송작가 유니온 탄생

- 방송작가협회가 있으나 지역작가에게는 문턱이 높음 (연회비, 가입조건 등)
- 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작가 등의 저작권 등에 초점이 맞아 지역의 방송구성작가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적음
- 2017년 11월 11일 방송작가 유니온(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) 출범
- 2018년 2월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 출범, 3회 충청지회 출범
- 2018년 대구MBC 단체협약, 안동MBC 원고료 협약 등
- TBC 원고료 인상

5. 지역방송작가들의 대응

- 방송작가지부 탄생과 함께 작가들 결속력 강화
- 경쟁 구도에서 탈피해서 상생 구도로 인식 전환
- 피해를 감수하고 회사에 목소리 내기 시작 (원고료 인상, 기획료 지급 등)

6. 대응 이후 변화 사례

- 대구MBC 원고료 체계 정비 및 매년 원고료 인상 정례화
- 안동MBC, 포항MBC, TBC 원고 인상
- MBC 계열사의 공동 제작프로그램 전국시대, 테마기행 길 등의 원고료 상향
- 기획료 책정 및 지급 규정 마련
- MBC, 보도국 작가들, 중노위에서 근로자성 인정 판결
- 임금 단체협약 사측과 협의 진행 중